SUMMA
Seoyoung Industrial Development / Seoyoung Engineering

경기신문

kgnews.co.kr

2022년 9월 23일 금요일 단기 4355년 (음력 8월 28일)

대표전화 031)2688-114 제5305호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The Good Developer GH

수원에는 아직 배수시설 없는 마을이 있다

권선구 가림리마을 주민 '큰불편'
집중호우 때 토사 그대로 뒤덮혀
사유지라 배수관 설치 불허 상태
도로확장 계획 묶여 기약도 없어
시 "조속한 문제 해결에 노력 중"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가림리마을은 현재 마을 전체에 배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마을입구로 들어서는 매송고색로 503번길 일대 모습. 사진=김세영 기자

"마을 전체가 자연배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등 여기저기 건의를 드렸지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22일 찾은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 가림리마을은 아직 배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이어가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보니 당연히 물 빠짐이 좋을 리 없다. 올 여름 집중호우 때도 토사와 빗물이 한꺼번에 넘쳐 마을 전체를 뒤덮었다.

저지대로 끊임없이 물이 흘러들어가 주민들 가옥은 물론 논밭에 큰 피해를 입었다. 지금도 도로 곳곳이 파여 자동차가 지나다니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마을주민이자 통장인 이현미(58) 씨는 "전에는 하지 않았던 모래주머니 설치 등 올 여름은 정말이지 난리도 아니었다. 아랫집이 떠내려 갈까봐 겁이 났다"면서 "집이 도로 바로 옆인데 1년에 두 번은 사비를 들여 굴착기로 배수로를 직접 파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마을입구로 들어서는 매송고색로 503번길 일대는 2015년부터 도로확장 계획이 잡혀 있지만 수년째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아직 주변 사유지의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다 지적측량도 마무리되지 않아 배수관을 묻을 수 없는 실정이다. 도로가 양쪽으로 넓어져야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출 수 있지만 기약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다.

급한 대로 배수관만이라도 놓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시·구청에 요청해봤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

현재는 임시로 배수로 공사와 함께 차가 빠지지 않도록 차선규제봉 설치, 도로포장 등의 공사를 구청에 요청한 상태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 때 가림리마을의 일대 도로가 침수되고 토사가 밀려 오는 모습. 사진=가림리마을회관 제공

사진 왼쪽부터 매송고색로 503번길 옆 주민들이 직접 파놓은 배수로와 지난 여름 설치한 모래주머니 모습. 사진=김세영 기자

수원시 권선구청 관계자는 "현재 민원 상황을 파악하였으며, 2차 현장조사를 앞두고 있다"면서 "이후 관련 시설의 설치 여부 등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도 절차상 문제로 답답한 상황이다. 현재 해당 지역은 새로 도로개설이 추진 중인데 지적재조사 구역으로 고시되어 설계나 측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완료해야 보상 문제도 매듭지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배수관 설치를 위해 도로개설을 조속히 진행 중이지만 지적재조사 절차가 남아 사업이 미뤄지고 있다"면서 "해당 지역은 하수도 등이 제대로 구비가 안 되어 신축 연계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타부서와 협력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영 기자

2022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 화홍문 모습. 사진=수원문화재단 제공

'화려한 빛 입은' 수원화성 야경

'2022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 23일부터 한 달 동안

수원화성 화홍문, 남수문, 수원천 일원
지난해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평가 1위

세계유산 수원화성의 야경을 화려하게 수놓을 '2022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가 23일부터 한 달 동안 수원화성 화홍문과 남수문, 그리고 수원천 일원에서 열린다.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는 조선 후기 왕권 강화와 개혁 정치를 위해 노력했던 정조대왕의 꿈을 의미하는 '만천명월(萬川明月) ;정조의 꿈 빛이 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수원화성 화홍문에서는 정조가 건설한 '개혁 신도시 수원화성'을 현대의 빛으로 화려하게 선보이고 수원시의 특례시 지정을 기념할 예정이다.

또한 '개혁의 꿈(김형규作)', '개혁의 길(하준수作)' 등 4개의 외벽영상 작품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여 연작 형태로 상영한다.

남수문에서는 지난해 상영해 화제를 모았던 '정조의 문(文)(김진란·고틀립作), 정조의 무(武)(남상민作), 정조의 예(禮)(신도원作), 정조의 법(法)(이예승作)'을 축제 기간 동안 매일 재상영한다.

수원천 1.1㎞ 구간에는 키네틱, 인터랙티브, 레이저, 라이팅 아트 등 다양한 매체를 융합한 야외 미디어아트 작품 전시를 준비했다.

이외에도 한옥이 주는 미적 아름다움을 주제로 한 사진전이 매주 금~토 팔달문화센터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수공예 작가들의 직거래 문화공간인 '행궁마켓'이 화홍문 광장과 팔달노인복지관 사이에서 주말마다 열린다.

'수원화성 미디어트쇼'는 문화재청과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문화재단이 주관한다. 지난해 문화재청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평가 결과 종합 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 유연석 기자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가닥'… 이르면 이번주 내 발표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진정세를 계기로 일부 남아있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만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감염병 정책에 공식 자문역할을 하는 전문가 그룹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는 전날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논의하고 실외 마스크 의무는 전면 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의무 조치를 해제하면서도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집회'에서 의무 착용 조치는 유지했다.

하지만 실외에서 50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감염병 자문위는 '실외 마스크 완전 해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비해 방역 부담이 적으면서 국민의 체감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정부가 감염병 자문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방역정책을 결정해 발표한 만큼 '실외 마스크 완전 해제' 조치는 조만간 공식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 처분이 없어지고 '자율 권고'를 강조하는 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감염병 자문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는 재유행 진정세에서 겨울이 오기 전에 이같은 의무를 풀어도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의 동시 유행이 예고되는 만큼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다.

복수의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언젠가 해제해야 한다는 총론 자체에는 대다수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지만 시기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며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착용 의무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영유아 언어발달 지연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데에는 인식이 모였다"고 전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모두 공감했다"며 "시기, 대상 등을 결정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배덕훈 기자

우리말 하루 한 단어

◆ 저널(journal) → 언론, 학술지, 시보

(원문) 국회·중앙도서관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국제 학술 저널 구독도 확대한다.
(고쳐 쓴 문장) 국회·중앙도서관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국제 학술지 구독도 확대한다.

(원문) 한반도 문제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영문 저널이 발간됐다.
(고쳐 쓴 문장) 한반도 문제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영문 학술지가 발간됐다.

'우리말 하루 한 단어'는 경기신문 문화체육관광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가 함께합니다.